

CHUKSAN News

축·산·소·식

[한우]

한우, 농식품 대표산업화 목표·비전 공유
한우협 주최 제9회 '한우인의 날' 기념식서



'전국한우협회 창립 11주년 및 제9회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가 지난 13~14일 전라북도 익산시 공설운동장에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이한수 익산시장,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과 이준동 농민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오세관 농협중앙회 상무를 비롯한 축산단체대표들과 한우협회 회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4일 열린 기념식에서 남호경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한우농가들은 지금까지 단결과 결집으로 고난

과 역경을 딛고 한우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온 것처럼 앞으로 더욱 단합된 힘으로 한우산업을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이를 위해 한우 생산 농가 스스로가 차별화에 앞장서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축사에서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히 늘어난 사육두수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 한우농가는 2000년 전면 수입 개방의 위기를 고품질, 안전한우 생산으로 극복한 전례가 있다"고 말하고 "각종 FTA 확대에도 한우산업이 농식품산업의 대표 주자로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산지 조직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날 도지회장 등 임원진이 배석한 가운데 '한우산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자율적인 저능력 암소 10만두 도태 캠페인 추진을 통한 안정적 산업 기반 구축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우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지부와 회원, 우수 한우판매인증점을 선정, 표창하고 장관상과 한우협회장상을 수여하는 등 시상식을 거행했다.

축산경제신문·옥미영 기자·omy@chukkyung.co.kr

[양돈]

대한양돈협회, 한돈판매 인증점 200곳 새로 선정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는 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0년 한돈 판매 인증점' 200개소를 새롭게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인증점 선정으로 한돈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 총 600곳으로 늘었다.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본격시



행한 한돈 판매점 인증제도는 국내 양돈 농가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한돈 판매인증점은 대한양돈협회와 우수 브랜드 경영체가

함께 책임지고 인증한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판매하는 업소로 소비자들은 인증점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1년간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다양한 판촉, 홍보 지원은 물론 서비스 교육 등 인증점의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한돈사랑 홍보대사인 텔런트 이한위씨가 참석해 한돈 판매 인증점 점주들과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한돈 판매 인증점은 앞으로 믿을 수 있는 한돈만을 정직하게 판매하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 박승덕 기자 · sdpark@fnnews.com

양계

월간 「현대양계」 500호 발행기념대회 성황리 개최

국내 농수축산 전문지 중 최고지명 달성



지난 1968년 창간된 「월간 「현대양계」 500호 발행기념대회」가 지난 9월 3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식전행사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제작한 동영상은 우리나라양계산업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온 월간 「현대양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기여해온 부분을 분야별로 전문 양계인들의 인터뷰를 담아 방영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본지 이희훈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42년 역사와 500호 발행에 만족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미래 양계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수행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한국양계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1,000, 2,000호를 발행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햇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월간 「현대양계」가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축사에서 "월간 「현대양계」 500호 발행을 전 양계인과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1,000호를 발행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계인의 영원한 등불과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대회에는 우리나라 양계역사를 담은 사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재래닭 품종사진, 과거부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계관련산업 제품 및 브로슈어, 양계질병 분석장비, 계산물홍보자료, 가금연구기관 연구자료 등을 담은 USB와 양계인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현대축산뉴스 · 기사링크(<http://www.hyunchuk.co.kr/news/5017>)

낙농

우유로 나누는 '어린이 사랑'

낙농자조금 어린이재단 '밀크프린스' 캠페인 협약... 저소득층 아동 우유지원



낙농자조금이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 나눔 프로그램인 '밀크프린스'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지난 8일 어린이재단 회의실에서 '밀크프린스' 공동 캠페인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낙농자조금이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낙농업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을 위해 일반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자조금 관계자는 "어린이 한 명이 1년간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약 20만원이 소요되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1년 동안 지정된 아이들에게 우유 기부 약정을 하는 것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개인들의 경우 어린이재단 기부 시스템을 통해 소액 기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들은 1년간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승호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우유처럼 어린이 발육에 필수적인 식품을 체계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우유를 마시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밀크프린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 이희영 기자 · Lhyoung@chuksannews.co.kr

양봉

'양봉산업 비전 2015'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 양봉산업 구체적 발전대책 마련의 장
- 정부 지원 발판되어 기초체력 다져야



지난 9월 2일(목) 한국양봉협회는 농협중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양봉산업 비전 2015' 심포지엄을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친환경축산업으로 손꼽히는 양봉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본 행사에는 농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 축산관련단체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굿은 날 썬에도 불구하고 600여명의 양봉농가가 참석하여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양봉협회 배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자 양봉산업에 따파 열정을 바치시는 모든 양봉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지난 세월 다져온 저력과 단합된 힘으로 양봉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첫 번째 순서로 농식품부 노수현 과장이 양봉산업 육성성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3,000억원인 양봉산업의 생산액을 2015년까지 7,000억원까지 증대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며 산업활성화를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진청 잠사 양봉소재과의 이만영 연구실장은 꿀벌 육종 개량과 농진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산림청의 차경희 사무관은 밀원수 식재확대와 산림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강연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양봉산업의 기초가 되는 밀원수 식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고, 한편 이날 거창군 박점용 지부장, 양평군 주찬일 지부장, 이병일 회원에게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양봉협회는 양봉산업의 큰 기틀을 마련하 농식품부 노수현 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양봉협회 제공



(사)한국양록협회, 국산녹용소비 홍보행사 개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지난 9월9일부터 국산녹용 소비를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후원한 이번 홍보행사는 국산녹용소비촉

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에게 국산 녹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4개 시도를 선별해 지역별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9월 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10일 광주, 9월 15일 대전, 9월 16일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홍보행사를 개최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사슴고기와 녹용탕은 물론 녹용홍보책자와 리플렛 및 무료 증정품을 제공했다. 홍보행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특히, 부산과 광주에서는 퓨전국악공연과 석고마임공연, 홍보용 얼음조각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사슴고기 시식과 녹용탕을 시음한 소비자들은 놀라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산녹용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 녹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한국양록협회 강준수 회장은 “그 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홍보행사를 지방에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더욱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 구분 없이 더욱 많은 분들께 녹용에 대한 바른 정보와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녹용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양록협회 제공